

연중 제30주일

기도서 P. 467 C해

제1독서 (집회 35, 15-17. 20-22)

제2독서 (디모후 4, 6-8. 16-18)

복 음 (루 가 18, 9-14)

#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 련



## 주제 파악의 지름길

김 순 태 신부

어느 곳에 “바보신집”이란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는 분을 보았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영리하게 사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번득이는 눈망울들이 눈치 빠르게 살아가는 세상, 잠깐 눈물리는 사이에 핸드백이 없어지는 세상, 눈감으면 코까지 베어 간다니 아침에 일어나면 코 부터 만져보는 세상, 혼자 툭툭한 채 하면서 자기 없이는 소위

착하고 좋은 일은 혼자만이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세상, 온통 영리하게 사는 사람뿐이고 온통 착한 사람들 뿐이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가수는 바보처럼 살았다고 목메인다. 오늘 세리도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한다. 반면 바리새이는 영리하고 착하게 잘 살았다고 호호해 한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바보는 죄인과 비례하고 영리한 사람은 선인과 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생각과 너무 거리가 멀다. 화살을 나 한테 돌리는 회개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물거품이다. 영리하게 약삭 빠르며, 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하고, 적당주의 처세술을 비법으로 익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풍조가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어느 신부님은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영리해졌다고 걱정한다. 봉헌금은 감사에 앞서 정확한 계산속에 세금화되고, 주일미사는 정성된 마음의 기도에 앞서 프로화 된다. 먹지 않고는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고 “목구멍 우선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타자(他者)가 아닌 나 자신을!

“네 피라지를 알라”라는 얘기는 웃기기 위한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로만 돌을 던지지 않았는지...

사랑을 준다고 피를 먹이지는 않았는지, 나는 지금도 바리새이 처럼 착각속에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자!

나도 너도 그 사람들도.....

하늘 밑에 사는 우리 모두 자신을 바라 보자. 너만이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하늘님 앞에 보잘 것 없는 벌레같은 우리 인생임을 생각해 보자.

회개란 고백소에서 나와 조금은 마음아파 하면서 절끔 흘리는 눈물로써 충분할 수는 없다. 맺고 끊음의 결단이 보여지는 생활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주제 파악을 하자!  
나 자신을!

주제 파악의 지름길은 바로 이런 깊은 회개의 길이 아닐까?  
(고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 극성 좀 떨지 말자!

무슨 일이나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에 큰 일이 날 것 처럼 서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 쳐놓고 뒷끝이 무르다. 어쩌면 시류(時流)를 잘타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유신」이 아니면 금방 난리라도 벌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 처럼 입에 거품을 물며 서술이 퍼렇게 날뛰던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은 대개가 소위 「해바라기」성을 띄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나, 자유당 시대에서나, 민주당 시대에서나, 공화당 시대에서나 항상 화려한 경력을 자랑삼으며 거드름을 띄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쩌면 그리도 박력처럼 변신이 자유자재로운지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을 대하다 보면, 간을 빼놓고 다닌다고 능청을 떨던 토끼의 이야기가 마냥 허구(虛構)만은 아닌성 싶다.

어른들, 그중에도 소위 지도자들의 변신술(變身術)이 너무나 훌륭해서 내일의 주인이 될 아이들까지도 그 흉내를 제법 잘 낸다. 텔레비전형(型) 명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늘같은 부모님은 물론, 참다운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할 선생님들까지가 항상 바람에 날리는 갈대 모양이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배움을 얻어내는 아이들이 성할 리가 없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를 가리켜 현실적응이라고 변명을 하던가!

6천개의 화분에서 버려질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향을 자랑하던 체전 무렵의 미(美)가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 손님을 맞겠다고 물을 주던 모습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예를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이 바로 그러한 극성이 아닌지 되돌아 보자. 신앙의 극성은 미신일 수도 있다.

## 숲 정이 산책



<성당·성지 순례기>

### 파티마 奇蹟의 現場 (2)

부주교 김 스테파노

지난 8월 13일은 지금부터 63년전에 성모님이 비번제 발현하신 날이다.

나는 이날 파티마 기적의 현장에서 국제미사를 봉헌했던 감격스러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독일에서 포르투갈의 서울 리스본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반 걸렸다. 리스본은 해가 마지막 떨어지는 곳이라 생각해왔던 서양의 맨 끝 항구도시다. 이곳에서 파티마까지는 기차로 2시간 걸렸는데 승무원이나 승객중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 약간 어려웠지만 파티마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무사히 잘 찾아갔다.

오랜동안 상상에 그렸던 파티마 성당—평소에 보고파 애원했던 파티마 성지—한눈으로 바라 보는 순간 나는 조용히 두손을 모았다.

성모님께서 히아친따에게 성당을 짓도록 지시해준 성당의 광장은 5.16광장보다 훨씬 컸지만 전야미사를 참례하기 위하여 몰려온 순례단들로 가득 메워있었다.

성모님께서 발현한 장소에서 기념성당까지의 거리는 400m의 거리였지만 성체와 성모님을 모신 행렬은 약 30여분 걸렸다. 전야미사는 미국순례단과 함께 온 추기경님이 주례하셨는데 교황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앞에서 있는 것이 몹시 못마땅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대극기도 꼬칠 날이 있겠지 하는 야심으로 위로를 삼았다.

주교님 6위와 300여명의 신부님, 수 많은 순례단들과 함께 봉헌하는 국제미사는 우렁찬 성가소리와 함께 밤하늘을 촛불로 붉게 물드려 메아리 치고 있었다. 이는 마치 1917년 10월 13일 바로 이 장소에서 또 하나의 태양이 구름에 쌓여 소용돌이 쳤다는 그 때 그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 같았다.

나는 미사중에 옆에 있는 신부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차원에서 왔느냐고 물기에 코리아라 했더니 당신은 비엔나이러 했다. 치열한 월남 전쟁때 우리 파월장병들이 생가였다.

포르투갈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님을 순례단들의 옷차림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성모님이 발현한 현장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빵구난 양말 뒤꿈치들을 보고도 알 수 있었다.

나는 8월 13일 파견미사 후에 기념성당을 참배하면서 제단 양편에 묻혀있는 히아친따와 프란치스코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성모님을 목격할 눈망울을 찍은 사진이 그렇게도 파티마의 기적을 생생히 표현해 줄 수가 없었다.

나는 파티마 기념목주가 든 가방을 들고 광장을 나오면서 성당을 또 한번 뒤돌아 보았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 농민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빈곤, 소외와 낙후된 농촌사회에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농민의 인간적 발전과 사회의 균형있는 진보를 성취하고자 가톨릭 농민회는 농민의 지각과 주체성을 이르게 세우고 협동 단결하여 현 장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소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농민 의식화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훈련장, 활동을 평가하고 새 방향을 찾는 회합장, 그리고 조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실 등, "우리의 집" 농촌 복음화를 위한 전당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나 셋방살이로 15년을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로 늘어나는 활동량을 효과적으로도 추진하고 본회 운동에 발전적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장에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갖춘 농민회관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어 회관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농민회 회원들은 회관건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같이 경제적 불황과 농사 작황이 나쁜 상황이지만, 주춧돌이라도 우리 힘으로 농자는 결의로 회원당 쌀 1말 이상 성미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관 부지는 이미 계약해 놓고 국내의 교제, 유관기관, 뜻있는 분들의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 사회의 발전은 이나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난 이들은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또는 빈민으로써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은, 농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생활의 어려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까.

농촌 사회의 복음화의 발전을 위한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해 주시는 정성은 농민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며, 가톨릭 농민회 회관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 그 숭고한 뜻은 이땅의 농민운동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성금은 전주 교구청내 농민회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80년 10월

한국 가톨릭 농민회 총재 주교 황 민 성  
지도신부 이 종 창  
회 장 최 병 육

### 학 원 생 모 집

중장비 종합반(도자·포크렌·지게차·페로이다)  
자 동 차 운전(자가용·영업용·대형반)

매월 1일, 15일 개강 수시 접수. 대형코스 장거리 연습장 완비. 중장비반은 운전실기 연습으로 운전면허 취득, 자체장비로 수시로 실습함

### 전주 새한 중장비 자동차 운전학원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34-24 주 이언우(요한)  
전화 전주 ㉠ 0073. (자) ㉢ 0591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거북표·오리표·청자표 기타 씽크 총판

### 중 앙 종 합 주 방

가스렌지·가스기구·판매 일체

중앙성당 정문 옆 ㉠ 0841 공장 ㉡ 5621

김 정 기(안드레아)

박 윤 규(안양) 근배

## 1980년도 추계 사제총회 열려...

지난 21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는 80년도 추계 사제총회가 개최되었다.

제 외국신부, 군중신부 및 은퇴신부님을 제외한 본 교구 사제 총원이 모인 이번 총회는 김환철 부주교님의 개최인사 말씀에 이어서 황인규(사제 평의회) 의장 신부의 사죄로 폐회시까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각 지구별 회의를 통해서 제시된 안전을 총회 전에 열린 평의회에서 세가지로 종합시켜 제시된 이번 안전은 ① 교육 전담사제 및 교육기구 설치 ② 새 본당건립에 관한 건 ③ 사제(특수 사목신부, 은퇴신부) 아파트 건립에 관한건... 등, 교회내 현안문제들과 그의 기타사항으로 대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에 따른 토의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토의된 안전들에 대한 결정을 다시 교구 참사회에서 다루게 된다.

아름든, 교구 발전을 위하시는 사제님들의 심사숙고(深思熟考)가 좋은 결실을 맺으시도록.....

## 예루살렘 부녀들(?)

강 인 찬 신부

주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두말할 나위없이 사랑의 계명이다. 이 계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값진 보배요.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데도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우기 우리 관심 밖의 일, 우리 주위로부터 먼곳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게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 귀감이 될 강한 예루살렘 부녀들이 있다. 정음본당 여자 신자들이다. 이들은 잊기 쉽고 주위로부터 소외된 군인성당 건립(정승현 신부님)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활동을 한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본당신부나 사도회에서 추진한 일도 아니다. 몇몇 여자 신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신자들이 호응한 것이다. 앞다투어 사랑을 실천한 것이다. 놀랄만한 일이다. 아니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을 새삼 느끼게 한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아진 성금은 200여만원, 곧 정승현 신부님께 전달될 것이다.

하느님께 영광, 착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보다 큰 축복이 있기를...  
(정음 천주교회 주임신부)

## 제6지구 친목 체육대회 <종합우승-한들>

맑고 드높은 창공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지난 10월 3일 제6지구는 산악지대로 교통의 불편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5개 본당에서 350여명의 신자들이 모여 4개 종목의 경기를 가지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종합우승엔 한들, 2위에 장수, 3위에 장계가 차지했다.

기도와 성서 낭독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마친 폐회식, 폐회식후에 흥겨운 막걸리 파티는 운동경기에 못지 않은 친목을 이루었다.

주최본당 전안 신부님과 사도임원 및 신자분들의 세심한 준비와 수고에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 □신장 개업 신내

금·은·보석·시계

금 · 보 장

(전·미성당서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지여관 입구)  
전화 ㉠4989(사구팔구) ㉡4988

맛의 전당

로 타 리 시 식 코 너

(풍년제과 맞은편)

한식·경양식·분식·중화식·  
튀김·주류

단체손님환영, 피로연, 회갑연,  
야외도시락 환영 전화 ㉠ 6710  
대표 이 승 준(방지거)

## 전주 토용 개점

토용(土龍)은 약이 아니라 고영양 식품입니다.

그 복용자들로부터 그 효과가 신비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래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알리고 권하고저 전주에도 분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최로렌조 수사님께서 개발하여 연구실험한 결과입니다.

적응증: 모든 간질환, 부인병, 저혈압, 폐결핵, 원기쇠약, 각종 난치병

전주·성모병원 3층(322호)  
전화 ㉠ 2301

유석중(스테파노)·오예환(바오로)

<수시 접수> 매월 1일 개강!

주 산 · 부 기 · 타 자

- 넓고 시원한 강의실
- 원장 선생 직접 지도
- 유치반(6세) 개설

김제읍 요촌리 156-15  
(고속버스터미널 앞)

관인 김 제 일 경 리 학 원

원장 김유근(요한) ㉠ 2953

## ◎담고약L·우진파스

주효능·신경통·근육통  
전통·운동전후

## ◎부이리진

주효능·식욕촉진·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용우(비오) 군산 ㉠578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예산 확정 연석회의...10월 27일(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에서
2. 교리교사 심포지움...11월 1일~2일 예정되었던 교리교사 심포지움을 연기시키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학생 화요일사...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4. 대학생 연합회 교구내 성지순례 회원들의 열기 속에 무사히 마칠 여산 천호공소-60명 참가 감사합니다
5. 81년도 천주교 신자 수협에 수록될 광고 접수  
81년도 천주교 신자 수협이 전국 평협에 의해 제작되는 바, 수협에 광고를 넣어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소를 소개하고 싶은 형제 자매들은 10월 23일까지 순경이 편집실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원
보좌	신부	정기성
보좌	신부	박성범
사도	회장	김기범

□ 지난주 불헌금: 283,160원  
전교주일 특별헌금: 31,59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혜수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안셀모회(대학생 모임): 오늘(26일) 오후 3시
  3. 울뜨레아 모임: 28일(화) 저녁미사 후(7시 30분)
  4. 저녁미사 시간변경: 7시 30분에서 7시로
  5. 애령회: 다음주일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한기 ② 차상열  
신자 기도-박병환
- 지난주 불헌금: 147,300원 교무금: 75,000원

(숲정이)

전화 ⑦373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요안나 월례회: 공식미사 후, 이근창 형제백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11월 1일
  3. 예비자 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매주 공식미사 후 11시
  4. 주일학교 후원회 야외진목회: 11월 4일
  5. 미사시간 변경 안내  
주일 아침미사 6시-6시30분, 주일 공식미사-10시  
주일 저녁미사 7시30분-7시,  
평일 아침미사 6시-6시30분, 저녁미사 7시30분-7시  
토요일 오후 3시 어린이미사  
토요일 오후 7시 중·고 학생미사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고남섭(2만), 김금리(11,000)
- 지난주 불헌금: 197,8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영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골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중·고등학교생회 추계 소풍: 일시-10월 26일  
장소-신리 수원지, 참가비-200원  
※ 오전 8시 30분까지 성당에 집합
  3. 혼인감좌에 수고해주시신 감사님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주일학교 자도회: 10시미사 후
  5. 가정방문 실시: 11월 4일부터  
4·5·6·7일-동완산·서완산동, 11월~14일-동교동  
18일~21일-동남·경원동, 12월 2일~5일-전동·중양동·다가동, 9일~12일-남노송동·서교동
  6. 전동 천주교회내 속하는 모든 신심단체는 11월 2일 사도회 월례회까지 재정보고 할 것
  7. 오늘의 전례담당  
아침미사: 사회-박중주, 독서-① 배양길 ②김배원  
공식미사: 사회-이영자, 독서-① 이준영 ②고수창  
저녁미사: 사회-김운주, 독서-① 이영철 ②정동희
- 지난주 불헌금: 346,84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부녀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중·고학생들의 파티마의 밤 행사: 11월 1일 7시30분
  3. 추계 어린이 운동회에 협력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4. 성당 제대꽃 기증한 임마리아씨 감사합니다
  5. 가정방문: 31일 오후, 시영주택 및 효자2단지아파트
  6. 수녀원 신축기금 십입하신 분: 박마리아(3천원), 김인중·이현자·익명(각 2만원), 유귀자(1만원)
  7. 성모시사회: 11월 1일 오후 2시
- 지난주 불헌금: 88,835원 교무금: 61,000원  
어린이 전교회비: 2,000원(20명)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춘근

1. 수녀님들을 위한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4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4.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고린토)전, 후서 전체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성령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불헌금: 187,94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자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시다
  3. 사도회 월례회: 11월 2일, 임원님들 참석 바랍니다
  4. 반석회 모임: 31일 저녁 7시 명랑소리사
  5. 주일학교 교리: 일요일 오후 2시 교리, 3시 미사
  6. 중·고생 미사(학생미사): 일요일 오전 9시  
학생들은 꼭 미사에 참석 바랍니다
  7. 성가연습: 매주 토요일 저녁미사 후  
젊은이를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232,41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법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외곽교우 모임: 11월 2일까지 보좌신부께 접수 바란
3. 성지순례: 11월 12일(수) 경기도 광주 천진암  
(회비-5,000원), 부녀회 주관
4. 4지구 주일학교 체육대회 1등-복자
5. 가정방문: 27일-다가동4가1번, 28일-다가동4가2·3번, 29일-다가동3가1·2번, 30일-중양동, 31일-고사동, 11월 4일-완산동, 5일-화산동, 6일-태평동 1·2번, 7일-태평동3·4번, 10일-태평동5번, 11일-태평동6·7번, 13일-진북1·2번, 14일-진북3·4번